

조현동 개인전 '시간이 들려주는 이야기'

서로간의 다름 그림으로 '조화'

(調和)

전주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에서는 한국화가 조현동의 54회 개인전 '시간이 들려주는 이야기' 이 기린미술관 기획 초대로 오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루어진다.

이번 전시에서 출품되는 작품들은 그동안 제작 발표해 왔던 '자연-순환-이야기', '공감-채집', '자연-경계' 주제의 작품 25점이 전시된다.

조현동은 '조화(調和)'의 작가다. 서로 상반되거나 다른 세계의 요소들을 그림으로 어우르고 조화시킨다.

풍경과 정물의 조화, 동양적 기법과 서양적 색채의 조화, 구상과 비구상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 평면적 묘사와 입체적 화면 및 오브제의 조화 등이다.

물론 이와 같은 다방면에서의 조화가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작가는 1987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작품 활동을 해왔다.

삶과 자연에 대한 관찰과 그림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이 다양한 상징물이 되어 화면 안에 집적되었다.

그림 속에 항상 등장하는 꽃을 비롯한 식물, 나비와 새는 각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존재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또한 기하학적 요소들이 공간과 차원을 분할시키며 현대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이 상징하는 자연의 질서와 조형적 언어를 작가는 화면 안에서 조율하고, 절충하고, 경연해 왔다. 그리고 근작 '자연-경계'는 자연의 질서를 넘어 비가시적 세계에 대한 확장으로까지 나아갔다.

조현동은 '조화(調和)'의 작가일 뿐만 아니라 '조화(造化)'를 만드는 작가다. 후자인 '조화(造化)'의 사전적 의미는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대자연의 이치다.

작가는 초기 작품에서부터 꽃과 생명을 중심으로 자연속의 다양한 이야기,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 담긴 의미들을 조화(調和)시켜 왔다. 그리고 오랜 시간의 작품 활동을 통해 삶의 이치, 우주 만물의 질서를 읽었다. 그 질서 안에서 미의식을 탐구하고 차원을 확장해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였다. 결국 조현동의 작업에서 모든 창조물은 미(美)를 위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깨달음을 준다. 그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전주 기린미술관서 열려
공감-채집·자연-경계
주제 작품 25점 선보여

래서 자연과 조화(調和)하고, 회화적 세계를 조화(造化)하고 있다.

조현동 작가는 그가 본인의 작품에 임하면서 동도서기(東道西器)-동양의 도를 지키되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 법고창신(法古創新)-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예 기본사상을 두고 있다.

작가는 많은 작품제작시간과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한국 전통채색기법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공간구성과 조형어법으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개성 있고 창의적으로 표현 한 작품들을 제작해 발표해 왔다.

작품에서 기초를 이루고 있는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 단청, 회화, 복식 등에서 볼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색채감을 작품에 바탕을 두고 표현하려고 했다. 화면구성에 있어서는 획일적으로 표현한 평면구성에 벗어나 분리된 화면의 조합과 입체감으로 현대적 구성과 조형성으로 개성 있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본인 작품의 작품성에 있어서는 작품성과 대중성이 공존하는 작품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예술작품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작품성이 존재해야 하고 대중들에게도 사랑받는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조현동 작가는 "차후에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현대문화를 본인의 작품에 반영해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글=최재혁 전시기획자 제공



연말 김제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2020 희망 콘서트' 내달 11일 김제문화회관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12월 11일 오후 7시 김제 시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 콘서트'가 펼쳐진다. 김제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에서 개최하는 이번 공연은 드림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첼로 협주곡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 서곡'을 시작으로 김제에서 활동하는 우쿨렐레 연주단체 '싱우쿨리나앙상블'이 연주하는 영탁의 '진이야', 영화 광복절 특사의 OST '분홍립스틱' 등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하모니의 향연이 예상된다.

또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맞춰 '크리스마스 캐럴 메들리'와 소프라노 문지희, 테너 송승현의 'You Raise Me Up', '오 거룩한 밤' 등의 곡을 더해 재미와 감동까지도 선사할 예정이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공연장 거리두기 객석제,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이번 공연은 무료이며 관람권 배부는 12월 1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imje.go.kr/art>)에서 배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문화원 '군민 농악발표 한마당·경연' 성료

구이농악단 '2관왕' 차지

완주문화원(원장 김삼곤)이 '2020 완주군민 농악발표 한마당 및 경연대회'를 연 가운데 구이농악단(단장 서정영)이 2관왕을 차지했다.

완주문화원은 최근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12개 농악단이 참여한 가운데 완주군민 농악발표 한마당 및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각 행사를 오전, 오후로 나뉘며 올해는 코로나19로 관람객 없이 각 단체별로 시간 순으로 공연장에 입장하고 비대면 발표 및 영상촬영으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13개 읍·면에서 12개팀(구이농악단, 경천농악단, 비봉농악단, 소양농악단, 삼계농악단, 화산두레풍장패, 이서공취팔취농악단, 용암마을굿보존회, 삼우초등학교농악단, 봉동풍

물보존회, 아름다운풍물단, 고산농악단)이 참가해 기량을 선보였다.

이날 심사는 비공개 심사로 진행했고 그 결과 구이농악단이 농악발표 한마당과 경연대회까지 대상을 차지했다.

김삼곤 원장은 "농악을 활성화해 완주군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완주군민의 화합과 자부심 고취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과장은 "전통예술의 맥을 잇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이번 농악발표한마당 및 농악경연대회 공연이 전통예술인뿐만 아니라 완주군민 모두에게 활력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국악과 함께 들려주는
'영화인들과의 추억'

국립민속국악원 12월 '다담'
김동호 강릉영화제 이사장 출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12월 2일 오전 11시 예원당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의 이야기 손님에는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이 출연해 강릉국제영화제 출범 배경을 비롯해 부산국제영화제 성공비결,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본 한국 영화계의 위상,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유명 영화인들의 인상 깊었던 만남과 추억 등을 소재로 주옥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음악 즐기기에 'MBN 보이스퀸'에 출연해 국악과 가요를 결합한 독창적인 창법을 선보이며 대중들의 가슴을 울리는 무대로 깊은 여운을 남긴 차세대 명품 소리꾼 조엘라가 출연해, '살다보면, 인연, 난감하네, 심청가 중 민좌맹인 눈뜨는 대목' 등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조엘라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